

#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이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김성민<sup>1</sup>, 송혜영<sup>2\*</sup>

<sup>1</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nalysis of Convergence Factors of Preschool children's Parenting and Health Characteristics on Economic Participation

Seong Min Kim<sup>1</sup>, Hye-young Song<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Gwangju, Korea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Wanju-Gun, Korea

**요약** 본 연구는 제7차 여성 가족 패널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하여, 직장군과 비직장군의 양육 특성과 건강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 총 697명을 대상으로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 이용하는 보육 시설개수가 많을수록, 시부모나 친정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 신체활동을 주 3회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였다. 반면,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신체활동 확보와 일과 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 가족 및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 건강, 경제, 미취학, 어머니, 양육

**Abstract** This study is a second analysis of the 7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it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for comparing parental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2 groups of workers and non-workers. For this, it has used crossove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ubjects of mothers of preschoolers - of 697 females in total, aged between 19 and 64. Based on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have discovered a few factors inducing the females to participate in more economic activities. The factors are as follows : baby sitters available, the more number of child care centers, the more helps of baby sitting from the females' parents and in-law parents and physical activities less than 3 times a week. In contrast, however, the more preschoolers they have, the less likely they are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economy. Against the backdrop,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social service systems to encourage various child care services and to foster 'child raising mothers-friendly' environments not only in families but in workplaces. All this is to improve the health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mothers in a more healthy way' an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Key Words** : Health, Economic, Preschool, Mothers, Parenting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Song(lemobam84@woosuk.ac.kr)

Received June 12,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ly 9,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2017년 1.05명보다 0.08명이 감소하였다[1]. 2018년 노인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18년 노년부양비가 19.6명에서 2060년에는 82.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2].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급감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보완해줄 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3,4].

2019년 상반기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별 고용률은 미취학 아동인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49.1%로 가장 낮은 고용 형태를 보였다[4]. 또한 미취학 아동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 부담 때문에 취업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5].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는 여성들이 취업 이후 결혼에 이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과 자녀 양육 문제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역할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출산과 양육, 건강 특성이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친다[5-7]. 여성들의 양육을 도와주는 노부모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여성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여성의 건강은 곧 다음 세대의 인력을 재생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5,6]. 여성의 건강은 여성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구 자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7-9]. 특히 직장여성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취약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성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여성의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여성의 건강은 직업의 연속성 보장, 2세의 건강 보호, 여성의 건강악화 방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건강과 육아로 인한 결근율, 조퇴율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의 향후 출산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7-11]. 여성의 건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 스스로의 건강 특성이

다[5]. 직장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건강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건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Sun(2020) 연구를 보면 기혼여성의 건강한 집단이 직장과 양육 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 여성의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수면 등의 항목에서 건강한 집단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건강이 경제활동 참가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9].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을 분석한 메타분석[7]에서는 건강 변인을 연구한 논문이 36편 중 3편으로 적은 수가 연구 되었고, 직장여성의 건강 변인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거나[6,7], 비직장군의 건강 변인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건강 특성이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9-12]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가 손주의 양육에 도움을 줄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에서 벗어난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일반적 특성이나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9,10,12]가 시행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가족 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 변수를 포함하면서 건강 특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차이를 비교한다.
- 2)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차이를 비교한다.
- 2) 미취학 아동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양육특성, 건강 특성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7차 여성 가족 패널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하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당시 1개월 동안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직장군,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직장군으로 분류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기혼 여성은 9,602명이었으며, 이 중에 미취학 아동 어머니는 709명으로 결측값을 제외한 연구 대상자는 총 697명으로, 직장군 307명, 비직장군 390명이었다. 미응답자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 2.3 자료수집 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도(7차연도) 여성 가족 패널 조사는 가구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 가족 패널 조사의 표본추출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시설 수용자 제외)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도시 규모, 산업별 종사자, 주거 형태, 가구원 수, 연령, 성별을 층화변수로 지정하여 층화하였다.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총 1,70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계통 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가구로 정하였다.

###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13,14]을 일반적 특성, 양육특성, 건강 특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여성 가족 패널 7차연도에서 조사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4.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 월평균 소득, 가정 경제 상태, 결혼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인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4분위로 구분하였다. 가정 경제 상태는 1문항으로 '매우 여유가 있다.' 1점에서 '매우 어렵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가정 경제 상태는 '매우 여유가 있다'와 '조금 여유가 있다'를 묶어서 '상'으로, '보통이다'라는 '중', '조금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를 묶어서 '하'로 변환하여 구분하였다. 결혼 만족도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1문항이다. 1점이 '매우 불행하다.' 1점에서 10점이 '매우 행복하다'로 상(7~10점), 중(4~6점), 하(1~3점)로 구분하였다.

#### 2.4.2 양육특성

양육특성으로는 미취학 아동 수, 아이돌보미의 여부, 보육시설 이용 개수, 시부모 아이 돌봄 여부, 친정 부모 아이 돌봄 여부로 구성하였다. 보육시설 이용은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기타 등은 '이용한다.', '보내지 않는다'를 '이용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여 개수를 합산하였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 아이 돌봄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 2.4.3 건강 특성

건강 특성은 진단받은 질환 유무, 지각된 건강 상태, 격렬한 신체활동, 스트레스, 우울로 구성하였다. 진단받은 질환 유무는 1문항으로 현재 진단받은 질환을 물었다. 지각된 건강 상태는 1점 '매우 좋다'에서 5점 '매우 나쁘다' 까지 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지각된 건강 상태에서 '매우 좋다'와 '대체로 좋은 편이다'를 '좋음', '보통이다'를 '보통', '조금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를 '나쁨'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한 일수로 주3일 이상은 '실천', 주3일 미만은 '비실천'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8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은 원도구 CES-D[15]를 Andersen과 Malmgren[16]이 10문항으로 축약한 CES-D 10으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2이었다.

#### 2.4.4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설문조사 당시 1개월 이상의 경

제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취업자'를 직장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비직장군으로 구분하였다.

치는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유지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면제승인을 받았다(P01-202010-22-007).

###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이용한 여성가족패널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양육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여부의 차이는 Rao-Scott  $\chi^2$ -test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

## 3. 연구 결과

### 3.1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직장군과 비직장군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대상자는 총 697명으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수를 의미하며, 직장군 390명으로 56.0%, 비직장군은 307명으로 44.0%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교육 수준, 남편의 월평균 소득, 가정 경제 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비직장군이 64.4%로 직장군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 $p=.006$ ). 남편의 월평균 소득 1분위에서 직장군 56.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Variables	Employment status		Total (n=697, 100.0%)	$\chi^2$	p
	Yes (n=390, 56.0%)	No (n=307, 44.0%)			
	n(%)				
Age				5.78	.056
20-29	7(23.3)	23(76.7)	30(100.0)		
30-39	279(45.3)	337(54.7)	616(100.0)		
≥40	21(41.2)	30(58.8)	51(100.0)		
Education level				7.61	.006
≤High school	68(35.6)	123(64.4)	191(100.0)		
≥University	239(47.2)	267(52.8)	506(100.0)		
Husband education				2.67	.102
≤High school	64(38.6)	102(68.4)	166(100.0)		
≥University	243(45.8)	288(54.2)	531(100.0)		
Husband income (ten thousand won)				22.84	<.001
Less than 25%(0-190)	77(56.2)	60(43.8)	137(100.0)		
Low 25-50%(190-299)	102(47.7)	11(52.3)	214(100.0)		
High 25-50%(300-399)	27(26.5)	75(73.5)	102(100.0)		
High than 25%(400≤)	101(41.4)	143(58.6)	244(100.0)		
Economic status of family (ten thousand won)				18.64	<.001
Low(0-3864)	51(33.3)	102(66.7)	153(100.0)		
Medium(3865-5999)	203(44.2)	256(55.8)	459(100.0)		
High(6000≤)	53(62.4)	32(37.6)	85(100.0)		
Satisfaction for marriage life				2.90	.235
Low	6(66.7)	3(33.3)	9(100.0)		
Medium	79(40.7)	115(59.3)	194(100.0)		
High	222(44.9)	272(55.1)	494(100.0)		

가 비직장군 43.8%보다 높았다( $p < .001$ ). 가정 경제 상태 '하'에서는 직장군 66.7%가 비직장군 33.3%보다 높았다( $p < .001$ ).

### 3.2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직장군과 비직장군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

Table 2에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 중 미취학 아동 수, 아이돌보미의 여부, 보육시설 이용 개수, 친정 부모 아이 돌봄, 시부모 아이 돌봄 여부가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수 3명 이상에서 직장군 31.3%가 비직장군 68.8%로 낮았다( $p = .025$ ).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서 직장군 72.4%가 비직장군 27.6%보다 높았다( $p < .001$ ). 보육시설 이용 3개 이상인 경우에서 직장군 53.3%가 비직장군 46.7%보다 높았다( $p = .008$ ). 시부모의 아이 돌봄에서 직장군 73.9%가 비직장군 26.1%보다 높았다( $p < .001$ ). 친정부모의 아이 돌봄에서 직장군 84.8%가 비직장군 15.2%보다 높았다( $p < .001$ ). 미취학 아동 어머니

Table 2.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Mothers

Variables	Employment status		Total (n=697, 100.0%)	$\chi^2$ or t	p
	Yes (n=390, 56.0%)	No (n=307, 44.0%)			
	n(%)				
<b>(Parenting characteristics)</b>					
Preschooler number				7.38	.025
1	226(47.5)	250(52.5)	476(100.0)		
2	76(37.1)	129(62.9)	205(100.0)		
3≤	5(31.3)	11(68.8)	16(100.0)		
Child care service				45.44	<.001
No	223(38.4)	358(61.6)	581(100.0)		
Yes	84(72.4)	32(27.6)	116(100.0)		
Child care centers				11.72	.008
No	25(28.4)	63(71.6)	88(100.0)		
1	203(47.2)	227(52.8)	430(100.0)		
2	63(42.3)	86(57.7)	149(100.0)		
3≤	16(53.3)	14(46.7)	30(100.0)		
Parent-in-law's child care				27.72	<.001
No	256(40.8)	372(59.2)	628(100.0)		
Yes	51(73.9)	18(26.1)	69(100.0)		
Parent's child care				23.40	<.001
No	279(42.0)	385(58.0)	664(100.0)		
Yes	28(84.8)	5(15.2)	33(100.0)		
<b>(Health characteristics)</b>					
Diagnosed disease				.04	.839
No	290(44.1)	367(55.9)	657(100.0)		
1≤	17(42.5)	23(57.5)	40(100.0)		
Perceived health status				4.11	.128
Bad	3(23.1)	10(76.9)	13(100.0)		
Fair	69(40.1)	103(59.9)	172(100.0)		
Good	235(45.9)	277(54.1)	512(100.0)		
Intense physical activity (number/week)				10.19	.001
<3	278(46.5)	320(53.5)	598(100.0)		
3≤	29(29.3)	70(70.7)	99(100.0)		
Perceived Stress	16.64±22.85	16.36±3.11	16.48±3.00	1.24	.217
Depression	13.14±4.19	13.74±4.15	13.47±4.18	-1.87	.06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Variables	Category	AOR <sup>†</sup> (95% Confidence Intervals)		<i>p</i>
		OR	C.I	
〈Parenting characteristics〉				
Preschooler number	1	1.00		<.001
	2	0.33***	0.19-0.54	<.001
	3≤	0.15**	0.03-0.60	.007
Child care service	Yes	2.63**	1.45-4.77	.001
	No	1.00		
Child care centers	No	1.00		<.001
	1	3.24***	1.79-5.85	<.001
	2	4.47***	2.02-9.83	<.001
	3≤	9.34***	3.01-28.94	<.001
Parent-in-law's child care	Yes	2.77**	1.36-5.61	.005
	No	1.00		
Parent's child care	Yes	4.47 <sup>†</sup>	1.43-13.95	.010
	NO	1.00		
〈Health characteristics〉				
Intense physical activity (number/week)	<3	1.00		
	3≤	0.34***	0.19-0.59	<.001

\**p*<.05, \*\**p*<.01, \*\*\**p*<.001

†AOR=Adju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level, husband income, economic status of family

니의 건강 특성에서는 격렬한 신체활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비직장군 70.7%이 직장군 29.3%보다 높았다(*p*<.001).

### 3.3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Table 3에서 미취학 아동 어머니 경제활동 참가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수준, 남편의 월평균 소득, 가정 경제 상태를 보정변수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로 두고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진행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 유의하게 나온 미취학 아동 수, 아이돌보미 여부, 보육시설 이용, 시부모, 친정 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OR=2.63, *p*<.001), 이용하는 보육 시설개수가 없는 경우보다 하나일 경우(OR=3.24, *p*<.001), 두 개일 경우(OR=4.47, *p*<.001), 세 개 이상일 경우(OR=9.34, *p*<.001), 시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OR=2.77, *p*=.005), 친정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OR=4.47, *p*<.01)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미취학 자녀 수가 1명인 집단에 비해 2명일 경우(OR=0.33, *p*<.001)와 3명 이상일 경우(OR=0.15, *p*<.001), 신체활동을 주 3회 이상으로 하는 경우(OR=0.34, *p*=.007) 경제활동에 참가 가능성이 낮았다.

## 4. 논의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7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건강 특성이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남편 월평균 소득, 가정의 경제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보면 비직장군이 직장군보다 많았다. 미취학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17,18]를 보면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이 많았고 대졸 이하부터는 비직장군이 많았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어도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상'인 경우 직장군이 비직장군보다 많았다. 이는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수준이 높으므로 가정 경제적 상태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9]. 반면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미취학 아동 어머니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계층 이하의 남편을 둔 여성들이 최근 10여년 동안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20,21]. 즉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가보다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마련되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겠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특성에서는 미취학 아동 수 3명 이상일 경우 비직장군이 직장군보다 많았다. 즉 자녀 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여성가족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경력단절 비율이 39.8%로 나타났고, 경력단절 사유에서 육아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1,22]. 미취학 아동의 육아가 경력단절의 높은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23].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정과 직장 업무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직장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여부, 보육시설 이용 개수, 친정 부모 아이 돌봄, 시부모 아이 돌봄 여부가 비직장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군 여성의 경우는 육아 활동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보육시설, 시부모나 친정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양육과 관련된 가족의 도움과 사회서비스 지원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 유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19].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신체활동을 주 3회 미만하는 경우가 주 3회 이상보다 경제활동 참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군 미취학 아동 어머니가 자녀 양육, 집안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상황[17,24]에서 주 3회 이상 신체활동을 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직장군은 직장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걷기, 청소, 육아와 같은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미취학 아동 비직장군이 자신의 운동 및 여가활동으로 인한 시간은 매우 적다[19]. 미취학 아동 비직장군도 미취학 아동과 관련된 가사노동, 육아와 관련된 신체활동 시간이 많다[24]. 이에 직장군과 비직장군 미취학 아동 어머니들이 운동 및 여가활동으로 인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양육 친화적 가족 및 직장문화를 만들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미취학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1명 일 때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게 나타났다. Kim[9] 와 Sun[5]의 연구에서 미취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미취학 아동이 수가 많아도 아이돌보미, 보육시설, 친정 부모나 시부모와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과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아이돌보미가 있을 경우, 이용하는 보육시설이용 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정 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와 시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도 돌봄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에 대한 보육 지원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24], 시부모의 보육 도움을 받은 경우가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7, 28]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가 2014년 29.2%에서 2019년 38.2%로 지속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20]. 이처럼 기혼 여성의 육아 부담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사유를 앞지르고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약 31%에서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해 본 적이 있을 만큼[12,29] 이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더 심하다.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을 다양한 역할병행에서 경험하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역할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므로 보육과 돌봄의 인프라를 강화하거나,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여성 가족 패널 7차 자료에 한정하여 횡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런 경우에 표본 추출과정에서 선택편향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자료를 결합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가족 패널 7차년도 자료수집은 훈련된 면담자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의 기억에 의해 작

성된다는 점에서 정보에 있어 회상편견의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건강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가족 패널 7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건강 특성이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관련 요인을 일반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양육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대상자의 건강 특성을 추가하여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 이용하는 보육 시설개수가 많을수록, 시부모나 친정부모 돌봄을 받는 경우, 신체활동을 주 3회 미만으로 하는 경우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돌봄서비스 다양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건강 특성을 건강향진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과 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 가족 및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가족 패널 7차년도 2차 자료라는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요인을 더 다양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1개월보다 긴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Women's life in statistics*. Statistics Korea 2019 [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5629](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5629)
- [2] Statistics Korea. (2018). *Elderly person statistics*. Statistics Korea 2018 [Online].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8>
- [3] J. S. Hwang, S. Y. Park & A. G. Shin. (2018). Two birds with one stone: Female labor supply, fertility, and market childcar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90(May), 171-193. DOI: 10.1016/j.jedc.2018.02.008
- [4] Statistics Korea. (2019).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Statistics Korea 2019 [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bmode=read&aSeq=379086&pageNo=1&rowNum=10&amSeq=&sTarget=&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bmode=read&aSeq=379086&pageNo=1&rowNum=10&amSeq=&sTarget=&sTxt=)
- [5] M. J. Sun. (2020). A Cas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experience of married working women with a infant and willingness to have the second child. *Journals of Women's Studies*, 30(1), 77-111. DOI: 10.272/pnujws.30.1.20204.7
- [6] H. J. Lee & H. U. J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Behaviors in Working Women and Non-working Women.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Spring Conference*,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 [7] J. W. Kim. (2020). *A Meta-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of reentry women*.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8] Y. I. Kim, S. N. Yun, S. L. Kim, H. S. Jung, E. S. Choi & Y. S. Song. (2003). A Study on Health Behaviors of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3(3), 223-231.
- [9] Y. S. Chung, Y. K. Auh & I. S. Choi. (2012). Influential factors for turn over intention of full-time and part-time married female employees. *Social Welfare Policy*, 39(3), 91-115. DOI: 10.15855/swp.2012.39.3.91
- [10] H. Y. Sung. (2008). Childcare policy fo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5(2), 81-98.
- [11] S. J. Kim. (2013). Birth rat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37(2), 103-134. DOI: 10.33071/ssricb.37.2.201308.103
- [12] N. J. Kim, M. J. Kang & M. J. Kang. (2016). *Analysis of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3] S. H. Son & J. R. Lee. (2014). Intention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o leave the labor for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157-177. DOI: 10.7466/jkhma.2014.32.3.157
- [14] J. S. Joo, Y. K. Moon, Y. T. Kim, Y. R. Kim, C. S. Song & Y. G. Lim. (2016).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2015 annual report*.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5]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of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10.1177/014662167700100306

[16] E. M. Andersen, J. A. Malmgren, W. B. Carter & D. L. Patrick.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DOI: 10.1016/s0749-3797(18)30622-6

[17] J. Chang & J. K. Kim. (2001). Effects of child care arrangements and costs on married women's career interruption. *The 3rd Conference Proceedings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Seoul..

[18] S. Cha. (2006). A study on mother's time deficit and tiredness cognition in preschool children stage. *Natural Science, 16*(1), 145-159.

[19] J. Y. Park, W. S. Kim, S. B. Kim, S. R. Ryu & H. J. Heon. (2015). Effect of perceptions of local neighborhood environments on the physical activity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us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3), 363-375.  
DOI: 10.5932/JKPHN.2018.32.3.363

[20] J. H. Im. (2014). Female workers' stress from nurturing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5), 132-143.  
DOI: 10.5392/JKCA.2014.14.05.132.

[2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2019 Women's life in statistics*. Seoul: Career-Interrupted Women's Economic Promotion Division.

[2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2019 Women's life in statistic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nline].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44](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44).

[23] M. Chin & M. Sung. (2012).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d married women: Focusing on family friendly work policies of workpla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13-24.  
DOI: 10.7466/JKHMA.2012.30.4.013

[24] J. Lee, H. Chung & S. Lee. (2012). *A study on the work-family balance among self-employed and micro-business women in Gyeonggi province: Current status and policy support measure*. Suwon: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25] Y. K. Cha. (2014). *Influence factors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for married women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household-policy*.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6] Y. J. Yeo, S. J. Kim, E. J. Kim, J. Y. Choi. (2013). *The study of women's employment activation pl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rends, determinants and impact)*.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7] Y. J. Lee. (2014). Survival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f married women - focused on skilled labor market. *Korea Welfare Panel Study, 7*(1), 453-471.

[28] S. H. Chung. (2014). Family structure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the effect of cohabitation with parents.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16*(1), 65-85.

[29] S. K. Kim, S. Y. Park & H. S. Rhee. (2017).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in married working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267-275.  
DOI: 10.14400/JDC.2017.15.3.267

김 성 민(Seong-mi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6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매, 건강증진행위

· E-Mail : aproditeee@naver.com

송 혜 영(Hye Young Song)

[정회원]



- 2008년 2월 : 차의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2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비만, 건강증진행위, 건강취약계층

· E-Mail : lemonbam84@woosuk.ac.kr